

2024
고2 문학
해냄

2024 고2 문학 해냄 | 2(1)(1) 규원가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저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규원가>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소년행락(少年行樂) 싱각하니 닐너도 속절업다’,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일다’, ‘플속의 우는 즘싱’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으므로, 해당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엿그제 저멋더니 헝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싱각하니 닐너도 속절업다
늙거야 설운 말슴 헝자 헝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헝여 이 내 몸 길
너 낼 제
공후배필(公侯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
速) 원(願)헝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
(緣分)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썸꺾치 만
나 이셔
상시(常時)의 용심(用心)헝기 살얼음 드디는 듯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유 지나 천연여질(天然麗
質) 절노 이니
이 얼굴 이 티도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헝엇더니
연광(年光)이 속홀(倏忽)헝고 조물(造物)이 다시
(多猜)헝여
봄브람 가을 돌이 뵈오리의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
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니 님이 날 꺾쇼냐
스스로 참괴(慙愧)헝니 누구를 원망(怨望)헝라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람
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른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이셔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 어디 머므르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나
인연(因緣)을 쫓쳐신들 싱각이야 업슬쇼냐
㉣얼골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로려든
열두 새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난(支難)헝다
옥창(玉窓)의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어 진
고

겨을밤 초고 촌 제 자취는 셋거 치니
녀름날 길고 길 제 구즌비는 므슴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
物)이 시름일다

꺾을돌 방(房)의 들고 실슬(蟋蟀)이 상(床)의 올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업시 헝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올샤

도러혀 플쳐 헤니 이리 헝여 어이 헝리
청등(靑燈)을 돌나노고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접연화(接蓮花) 헝 곡조(曲調)를 시름조차
석거 튼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셋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A] 옥수(玉手)의 튼는 수단(手段) 네 소리 잇다
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헝니 뉘 귀에 들
닐쇼니

간장(肝腸)이 구회(九回)헝야 구비구비 근처
셔라

출하리 즈을 드러 썸의나 보려 헝니
브람의 지는 님과 플 속의 우는 즘싱

므슴 일 원수(怨讐)로셔 즘조차 썸오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
水) 막혀셔도

칠월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
期)치 아니커든

우리 님 가신 후(後)는 므슴 약수(弱水) 꺾곶관디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의 비겨 셔셔 님 가신 뒤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미쳐 잇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프른 곳의 새소리 더욱 썩다
 세상(世上)의 설운 사름 수(數) 업다 흐려니와
 박명(薄命)흔 흥안(紅顏)이야 날 그튼니 쏘 이실
 가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 흐여라
 - 《고금가곡(古今歌曲)》

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며 늘어버린 처지를 한탄한다.
- ② ㉡: 임의 부재가 야유원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③ ㉢: 좋은 자연 풍경도 모를 정도로 화자의 심경이 외롭고 쓸쓸함을 보여 준다.
- ④ ㉣: 고사를 통해 녹기금 소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구슬프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 화자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지만 만남을 지속하는 대상을 통해 임과 재회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외모는 현재 '면목가증'이다.
- ② 화자는 '박명한 흥안'이라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외모는 과거에 '천연여질', '설빈화안'이었다.
- ④ 화자는 '공후배필'이 되어 '소년행락'을 계속 누리고 있다.
- ⑤ 화자는 '군자호구'를 원하였지만 '장안유협 경박자'를 만났다.

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특정한 대상에게 원망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 ② ㉠와 달리 ㉡는 특정 대상과의 사별을 드러낸 것이다.
- ③ ㉡와 달리 ㉠는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 ④ ㉠와 ㉡는 모두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⑤ ㉠와 ㉡는 모두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을 통해 현실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 ② '학'의 울음소리를 듣고 슬픔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젊은 시절에 비해 거문고 연주 실력이 떨어진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 ⑤ 연주 소리를 이국적 공간의 소리에 비유하여 화자의 애상감이 강조되고 있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엇그제 저멋더니 흐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흐니 닐너도 속절업다
 늙거야 설운 말슴 흐자 흐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흐여 이 내 몸 길
 너 낼 제
 공후배필(公侯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
 迷) 원(願)흐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
 (緣分)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쏘마치
 만나 이셔
 상시(常時)의 용심(用心)흐기 살얼음 드드논 듯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유 지나 천연여질(天然麗
 質) 절노 이니
 이 얼굴 이 티도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흐엇더니
 연광(年光)이 속홀(倏忽)흐고 조물(造物)이 다시
 (多猜)흐여
 ㉢봄바람 가을 돌이 뵈오리의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딤 가고 면목가증(面目可
 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니 님이 날 필요냐
 스스로 참괴(慙愧)흐니 누구를 원망(怨望)흐랴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름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른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이셔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 어디 머므르고
 원근(遠近)을 모라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나
 인연(因緣)을 싹치신들 심각이야 업슬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로려문
 열두 새 김도 길사 설흔 날 지난(支難)하다
 옥창(玉窓)의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띄여 진
 고

겨을밤 차고 춘 제 자취는 섯거 치니
 녀름날 길고 길 제 구준비는 모습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일다

꺾을돌 방(房)의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의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샤
 도르혀 펼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청등(靑燈)을 돌나노코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접연화(接蓮花) 흔 곡조(曲調)를 시름조차 석거
 트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튼는 수단(手段) 네 소리 잇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닐소니
 간장(肝腸)이 구회(九回)하야 구비구비 근처셔라
 출하리 즘을 드러 쏘의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님과 ㉡플 속의 우는 즘성
 모습 일 원수(怨讐)로셔 즘조차 시오논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셔도

칠월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
 期)치 아니커든
 우리 님 가신 후(後)는 모습 약수(弱水) 꺾곶관디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논고
 난간(欄干)의 비겨 셔셔 님 가신 디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미쳐 잇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프른 곳의 새소리 더욱 섯다
 세상(世上)의 설운 사롬 수(數) 업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흔 홍안(紅顏)이야 날 꺾트니 쏘 이실
 가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 《고금가곡(古今歌曲)》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의 즐거웠던 시절과 대비하여 현재의 고통을 부각하고 있다.
- ② ㉡: 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회상하고 있다.
- ③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탄식하고 있다.
- ④ ㉡: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대상과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고 있다.

신유형

<규원가>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 시어 및 시구의 현대어 풀이에 대해 묻는 문제, 해당 작품의 갈래인 가사의 갈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내용과 그 의미, 표현상 특징, 갈래 특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엇그제 저멋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심각하니 닐너도 속절업다
 늙거야 설운 말슴 하자 하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 내 몸 길
 너 낼 제
 공후배필(公侯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
 迷) 원(願)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
 (緣分)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쏘치 만
 나 이셔
 상시(常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드디는 듯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유 지나 천연여질(天然麗
 質) 절노 이니
 이 얼굴 이 티도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하엿더니
 연광(年光)이 속홀(倏忽)하고 조물(造物)이 다시
 (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돌이 뵈오리의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딤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니 님이 날 꺾쇼냐
스스로 참괴(慙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라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름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문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이셔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딤 어딤 머므르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나
인연(因緣)을 쫓쳐신들 싱각이야 업슬쇼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로려문
열두 새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난(支難)하다

옥창(玉窓)의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
여 진고

겨을밤 차고 촌 제 자취는 섯거 치니
녀름날 길고 길 제 구즌비는 모습 일고
[A]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
(景物)이 시름일다

꺾을돌 방(房)의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의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올샤
도르혀 펼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헝리
청등(靑燈)을 돌나노코 녹기금(綠綺琴) 빛기 안아
접연화(接蓮花) 혼 곡조(曲調)를 시름조차 석거
뜯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뜯는 수단(手段) 네 소리 잇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닐쇼니
간장(肝腸)이 구회(九回)하야 구빅구빅 근쳐셔라
출하리 즘을 드러 씬의나 보려 하니
벼람의 지는 닙과 풀 속의 우는 즘싱
므슴 일 원수(怨讐)로셔 즘조차 쉰오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셔도

칠월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커든

우리 님 가신 후(後)는 모습 약수(弱水) 꺾곶관디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논고
난간(欄干)의 비겨 셔셔 님 가신 디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밍쳐 잇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프른 곳의 새소리 더욱 섯다

세상(世上)의 설운 사름 수(數) 업다 헝려니와
박명(薄命)흔 흥안(紅顏)이야 날 꺾니 또 이실
가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 《고금가곡(古今歌曲)》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과장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객관적인 대상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 ④ 임의 부재를 느끼는 공간에서 화자는 임을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 ⑤ 설화적 인물과 화자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절을 드러내는 자연적 배경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자신의 운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문답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현재 처지에 대해 자책하고 한탄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시적 대상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여성과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세월의 흐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8. 윗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조선 시대 여성들의 생활 속의 감정을 섬세하고 진솔하게 담아내었다.
- ㄴ. 남편을 원망하는 한편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담아내었다.
- ㄷ. 4음보 연속체의 가락을 통해 여성의 감정

을 우아하고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ㄹ.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사랑하는 임의 안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9.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무정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계절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영탄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현재의 불행한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비유와 대구 등의 표현으로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외로움과 슬픔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3·4(4·4)조, 4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을 지닌 운문 문학으로서 양반 부녀자가 지은 규방 가사이다.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감정이 고조된 곳은 한자어보다 우리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 상황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물에 의지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애쓰고 있다.

- ④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비유적 표현과 고사를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보이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③ 4음보 율격과 대구법 등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④ 화자의 외로움과 조음되는 자연적 배경을 대구를 통해 표현하였다.
- ⑤ 동병상련의 대상을 제시하여 자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속성을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계절감을 주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4~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㉞엿그제 저멋더니 흐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싱각흐니 닐너도 속절업다
 늙거야 설운 말습 흐자 흐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혀여 이 내 몸 길
 너 널 제
 공후배필(公侯配匹) 못 브라도 군자호구(君子好
 逑) 원(願)허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
 (緣分)으로
 ㉟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썸긋치
 만나 이셔

상시(常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드되는 듯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유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노 이니

이 얼굴 이 티도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하였더니
㉠연광(年光)이 숙홀(倏忽)하고 조물(造物)이 다
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돌이 뵈오리의 북 지나듯
설빙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니 님이 날 필요냐
㉡스스로 참괴(慙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라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람
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문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이셔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 어디 머므르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나
인연(因緣)을 뜻치신들 심각이야 업슬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로려든
㉤열두 새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난(支難)하다
옥창(玉窓)의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
고

겨을밤 차고 촌 제 자취눈 섯거 치니
너름날 길고 길 제 구준비는 모습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
이 시름일다

꺾을돌 방(房)의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의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샤
도르혀 펼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청등(靑燈)을 돌나노코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접연화(接蓮花) 한 곡조(曲調)를 시름조차 석거
뜬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튼는 수단(手段) 네 소리 잇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닐소니
간장(肝腸)이 구회(九回)하야 구비구비 근처셔라
㉦출하리 줌을 드러 쏘의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님과 풀 속의 ㉨우는 짐승
므슴 일 원수(怨讐)로셔 짐조차 씩오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서도

칠월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커든

우리 님 가신 후(後)는 모습 약수(弱水) 꺾관디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의 비겨 셔셔 님 가신 뒤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밋쳐 잇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프른 곳의 ㉫새소리 더욱 섯다
㉬세상(世上)의 설운 사람 수(數) 업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꺾니 또 이실
가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 《고금가곡(古今歌曲)》

14. ㉠~㉭ 중, 화자의 정서가 비슷한 것끼리 묶인 것은?

	원망	그리움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15. ㉡~㉥의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 ① ㉡: 옛그제 젊었더니 벌써 어찌 다 늙어버렸는가.
- ② ㉢: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조물주마져 시기가 많아서
- ③ ㉣: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 ④ ㉤: 하루가 길기도 길고 한 달이 지루하다.
- ⑤ ㉥: 세상의 서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만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㉔에서 방해물로 인한 이별이라는 유사한 상황에 놓였지만 때를 놓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 직녀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상황과 대비된 결과를 통해 '우리 님'에 대한 원망의 어조를 드러낼 뿐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

① ㉑: '엇그제'와 '흐마'를 통해 젊었던 외모가 늙어 버린데 대한 탄식이 드러난다.

② ㉒: '야유원'에 '새 사름'이 나타났단 말인가라는 표현은 술집에 새 사람을 만나러 갔을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으므로 임이 부재하는 원인을 야유원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㉓: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자신의 외로운 처지 때문에 즐겁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다.

④ ㉔: 한 나라 고사에 나오는 '녹기금'을 통해 시름을 달래고자 하나 오히려 처량한 분위기가 심화된 다.

2. 정답 ④

윗글에는 부모님이 화자를 기를 때 '공후배필'은 못바라도 '군자호구'로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을 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화자는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 및 원망, 한탄이 드러나 있다. 화자가 '공후배필'이 되어 '소년행락'을 계속 누리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① 늙고 못생긴 얼굴인 '면목가증이 되었구나'를 통해 화자의 현재 외모를 알 수 있다.

② 화자가 언급한 '박명훈 흥안'을 통해 화자의 운명을 기구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여기에는 체념과 절망적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③ 화자는 15, 16세가 지나 '천연여질'에 이르러 백년가약을 하였지만 세월이 지나 그 '설빈화안'은 어디 갔느냐고 탄식하는 부분을 통해 화자의 과거 외모가 아름다웠음을 알 수 있다.

⑤ 화자도 부모님의 기대처럼 '군자호구'를 원했지

만 운명으로 인해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처럼 만났다고 하였으므로 '장안유협 경박자'는 남편임을 알 수 있다.

3. 정답 ⑤

㉔는 못난 얼굴을 지닌 자신을 자책하고 있으며 ㉕는 곁에 없는 임이지만 몹시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㉔, ㉕ 모두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① ㉔는 특정한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② ㉕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냈을 뿐 특정 대상과의 사별은 알 수 없다.

③ ㉔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했지만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이 그만큼 못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체념적 어조의 표현이므로 설의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㉔는 화자가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외모에서 찾고 있으며 ㉕는 화자가 임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므로 모두 화자의 현실 극복의 의지와 관련이 없다.

4. 정답 ⑤

[A]의 연주 소리를 소상강과 망주석이라는 이국적이고 낮선 공간의 소리에 비유하여 화자의 슬픈 정서와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주 소리를 이국적 공간의 소리에 비유하여 화자의 애상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① '꿈'을 통해 현실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였으나 바람에 떨어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짐승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어 원망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지 않다.

② 자신이 연주하는 거문고의 연주 소리를 '학'의 울음소리로 비유하는 것이지 실제로 '학'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다.

③ 화자는 자신이 머무는 부용장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며 시름을 달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자신의 아름다운 손가락으로 거문고 타는 솜씨는 그대로라고 하였으므로 젊은 시절에 비해 거문고 연주 실력이 떨어진 것을 아쉬워하고 있지 않다.

5. [정답] ⑤

㉔ ‘플 속의 우는 짐승’은 화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사용되었다. 대상과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기구한 운명을 한탄한 것은 아니다.

① ㉑의 ‘소년행락’은 어린 시절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절을 나타내며 화자는 소년행락 시절을 생각하니 말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표현을 통해 과거와 대비하여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낸다.

② ㉒에서 ‘장안유희의 경박자’를 꿈같이 만났다는 언급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은 ‘임’이 경박한 사람임을 드러내므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결혼 생활을 회상하고 있다.

③ ㉓은 봄바람 가을 물이 베틀의 울에 북 지나가듯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는 세월이 매우 빠르게 지나갔음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세월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었다.

④ ㉔에서 화자는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아름다운 자연물과의 대비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정답] ⑤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유사하나 오히려 때를 놓치지 않고 만나는 설화적 인물(견우직녀)과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화자의 절망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 설화적 인물과 화자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 것은 아니다.

① 가을 달이 방에 들고 실솔(귀뚜라미)이 침상에서 운다고 표현하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애달픈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시름 때문에 간장(창자)이 굵이굵이 끊어진다는 표현에 과장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화자의 상황과 처지가 드러난다.

③ 화자는 삼촌화류 호시절은 아름다운 경치에 매우 좋은 때이지만 현재 자신의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아름다운 봄의 시절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④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서 임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통해 임의 부재를 느끼는 공간에서 화자는 임을 만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정답] ③

문답법은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윗글에서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여 짐짓 자신의 처지를 자책하고 한탄하는 설의법이 ‘내 얼굴 내 보거나 어니 님이 날 필요냐’와 같은 문장에서 드러난다. 이 문장은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의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니 어떤 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정도라며 자신의 외모를 자책하고 한탄하는 내용이다.

① 봄에는 ‘매화’, 겨울에는 ‘눈’, 여름에는 ‘비’, 가을에는 ‘실솔’이라는 자연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쓸쓸하고 처량한 정서를 드러낸다.

② 화자는 ‘공후배필’까지는 아니어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길 바라였지만 자신의 업보와 인연으로 잘 못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운명론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임에 대한 멀고 가까움을 모르니 소식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며 행방을 알 길 없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인연을 끊으려고 한들 (임에 대한) 생각까지 없을 것인가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지나 말지와 같은 부분에서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세월이 빠르게 흘러감을 나타내기 위해 여성의 실생활과 가까운 베틀의 울을 활용하여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8. [정답] ③

ㄱ. 이 작품은 최초의 내방(규방) 가사로 조선 시대 여성의 생활공간 및 실생활과 가까운 물건들이 드러나며 이는 조선 시대 여성들의 생활 속의 감정을 섬세하고 진솔하게 담아내었으며 슬픔과 한을 말하면서도 우아한 품격을 드러내는 가사이다.

ㄴ. 봉건 제도 하에서 겪는 부녀자의 한을 드러내면서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ㄷ. 4음보 연속체라는 가사의 운율적 특징을 유지하며 여성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ㄹ. 가을 달이 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우는 소리에 화자는 긴 한숨과 눈물을 떨어뜨리는데 이것은 화자가 귀뚜라미라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것으로 사랑하는 임의 안위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화자의 고독하고 외로운 정서를 드러

낸 것이다.

9. [정답] ②

윗글에서는 무정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의인화의 방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① '겨울밤 차고 촌 제 자취는 섯거 치니'와 '녀름날 길고 길 제 구준비는 므슴 일고'에서 유사한 문장을 활용한 대구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니 님이 날 꺼쇼냐',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등 의문의 방식을 통해 자책과 한탄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봄부람 가을 돌이 뵈오리의 북 지나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흘러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일 년에 한 번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나는 견우직녀를 통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10. [정답] ②

계절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영탄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봄이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아무런 감흥을 갖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① '소상야우의 대 소리 섯도는 듯'이라는 부분에서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은 순임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상강에서 슬피 울다 몸을 던져 죽었다. 이때 흘린 눈물 자국이 대나무에 반점으로 남았다고 하며 이를 '소상반죽'이라고 한다. 이는 남녀의 슬픈 이별을 뜻하는 고사로 활용되는데 규원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표천년의 별학이 우니는 듯'에서는 옛날 중국 요동의 정영위라는 사람이 영허산에 가서 도를 닦은 뒤 학이 되어 천 년 만에 돌아와 화표주에 앉았다고 하는 전설에서 차용한 표현이다. 이 두 가지 고사는 화자의 애절하고 슬픈 정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③ '엇그제 저멋더니 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 싱각하니 닐너도 속절업다'와 같은 부분을 통해 과거에는 젊었지만 이제는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대비하였으며 덧붙여 자신의 어린 시절 즐거웠던

생각은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며 과거에 비해 현재 불행한 처지에 놓인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다.

- ④ '겨울밤 차고 촌 제 자취는 섯거 치니', '녀름날 길고 길 제 구준비는 므슴 일고'에서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실상가상의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량한 상황을 드러낸다. 또한 '소상야우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의 별학이 우니는 듯'에서는 들어주는 이 없는 음악소리에 대한 화자의 애상적 정서가 드러난다.
- ⑤ 윷글은 3·4(4·4)조의 음수율을 토대로 4음보의 규칙적인 운율이 드러나며 이는 '가사'의 형식적 특성이다. 또한 양반 부녀자가 지은 최초의 여류 가사, 내방 가사, 규방 가사이다.

11. [정답] ③

윗글에서 화자는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물을 객관적 상관물로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연물에 의지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애쓰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① 고사를 사용한 부분에서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고상함을 유지하고 화자의 감정이 고조된 '도르혀 플쳐 헤니 이리 험여 어이 험리',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 험여라'와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말을 사용하여 화자의 진솔한 감정을 드러낸다.
- ② '엇그제 저멋더니 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 싱각하니 닐너도 속절업다'와 같은 부분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외모를 대비하였으며 과거의 행복한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해도 소용없음을 표현하여 화자의 괴로운 상황을 드러낸다.
- ④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니 님이 날 꺼쇼냐',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랴'에서는 화자의 자책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인연을 쫓쳐신들 싱각이야 업슬쇼냐'와 같은 부분에서는 인연이 끊어졌어도 임에 대한 생각은 여전한함을 드러내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⑤ '소상야우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의 별학이 우니는 듯'과 같은 부분에서 화자가 연주하는 음악에 대한 분위기를 직유와 고사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12. [정답] ⑤

동병상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윗글에서는 동병상련의 대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자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

① 화자의 아름다운 얼굴인 '설빈화안'이 밍살스러운 모습인 '면목가증'으로 변한 것은 '봄브람 가을 물이 뵈오리의 북 지나듯' 세월이 매우 빠르게 흘러감을 나타내었다. 반면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로려른', '열두 새 김도 길사 설흔 날 지난하다'에서는 임의 얼굴을 못 보고 그리워만 하고 있는 날에 대해서는 매우 길고 지루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초로논 밍쳐 잇고 모운이 지나갈 제', '죽림 프른 곳의 새소리 더욱 썩다'의 구절에서 풀에 맺힌 이슬, 저녁 구름, 대나무 숲을 통해 시각적 심상을, '새소리'를 통해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였다. 이는 임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현장감 있게 드러나게 한다.

③ 윗글은 전체적으로 4음보의 운율을 지니고 있으며 '겨울밤 촛고 촌 제 자취는 섯거 치니', '녀름날 길고 길 제 구준비는 모습 일고'와 같은 부분에서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운문적 특성을 드러낸다.

④ '겨울밤 촛고 촌 제 자취는 섯거 치니'에서는 차가운 겨울밤에 눈이 오고, '녀름날 길고 길 제 구준비는 모습 일고'에서는 여름날이 길고 긴데 비까지 오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화자의 처량한 처지를 드러내는 자연적 배경이며 두 문장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는 대구법이 드러난다.

13. 정답 ⑤

[A]에서는 계절감을 주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남편이 집을 떠난 지 여러 해가 되었고 화자의 쓸쓸하고 처량한 처지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계절감을 주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A]에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반복법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A]에는 묻고 답하는 문답법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지 않다.
- ③ [A]에는 먼 거리의 원경에서 가까운 거리의 근

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A]에는 대상의 속성을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는 점층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14. 정답 ①

㉠에서는 자신의 운명 때문에 바라던 남편상이 아닌 서울 거리의 호탕한 풍류객이면서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났다고 하였으므로 화자의 운명과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

㉡에서는 남편이 삼삼오오 다니는 기생집에 새 사람이 나타나서 화자를 찾지 않는 것인지 생각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원망의 감정이 드러난다.

㉢에서는 남편의 행동 때문에 살기 어려운 화자의 원망이 드러난다.

㉣에서는 남편의 얼굴을 못 보아도 그리움의 심정은 계속됨을 드러내므로 그리움의 감정이 나타난다.

㉤에서는 못 보는 남편을 꿈에서나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에서는 난간에 서서 임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15. 정답 ⑤

㉠는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이라고 해석해야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구절의 의미가 모두 적절하다.

16. 정답 ①, ⑤

<보기>는 감정 이입에 대한 설명이다.

① '실술'이 침상에 '운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실술'이라는 대상에 자신의 서글픈 감정을 이입한 것이다.

⑤ '새소리'를 '썩다'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의 슬픈 정서가 반영되어 더욱 슬프게 들리는 것이므로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② '지는 닢'과 ③ '우는 즘싱' 모두 화자의 잠을 방해하는 자연물로 방해물에 해당한다.

④ '모운'은 석양에 물든 구름으로 화자의 상황을 애상적으로 드러낸다.

17. 정답 ②

목업 배포공시